

‘사법부 무력화’ 반발...이스라엘 시위·파업 ‘혼란’

극우정권, 대법원 행정부 견제 권한 축소 사법정비안 의회 통과 국가 신용등급 하락에 사회 분열 대치...주가·통화 가치도 급락

이스라엘 사회가 베냐민 네타냐후 극우 정권의 일방적인 사법정비로 크게 요동치고 있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대법원의 행정부 견제 권한을 축소하는 사법정비 법안이 결국 의회를 통과하자 곳곳에서 시위와 파업이 벌어지고 주가지수 등 경제지표도 추락하고 있다.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에서 사법정비 법안이 본격 추진되면서 현지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타냐후 정권의 일방적인 사법정비 법안은 지난 24일 이스라엘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의회에는 더 큰 힘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는 방식으로 정권의 일방 폭주를 견제할 수 있었지만, 법안은 이와 같은 기능을 없앴다.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즉시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의사들은 파업에 나섰으며 수천 명의 예비군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복무를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자마자 이 법안을 무력화해달라는 정원이 법원에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의 사법정비는 이스라엘 사회의 큰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WSJ은 평가했다.

WSJ은 이미 이스라엘은 사법정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세속적인 일반 대중과, 법원이 자유주의 성향의 판사들로 점령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자주 내린다고 여기는 종교적·극우적 성향의 국민들로 분열돼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지표도 좋지 못하다.

이스라엘의 주요 주가지수인 'TA-35'는 법안

이 통과된 다음날 3% 이상 하락하며 충격파에 노출된 모습을 보였다.

이스라엘 증시는 최근 한 달간은 네타냐후 행정부의 사법정비 논란이 절정점을 찾은 것이라는 기대로 상승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화폐인 셰켈화는 법안 통과 다음날 달러화 대비 1.3% 떨어졌다.

현지 투자은행인 메이트브 인베스트먼트의 알렉스 자베진스키 수석 분석가는 "달러화 대비 셰

켈화의 가치는 원래 미국 증시에 연동돼 움직였지만 올해 초 사법정비 법안이 알려진 이후엔 달라졌다"며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화폐 가치의 10%는 평가절하된 셈"이라고 말했다.

모건스탠리는 이스라엘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고 무디스는 "법안 통과로 인해 이스라엘의 사회적 정치적 긴장이 계속돼 경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계속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재무장관과 성명을 내고 최근의 경제지표 급락은 일시적인 것으로, "면지가 가라앉으면 이스라엘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 근거로 이스라엘의 가스 산

업 현황과 인텔,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의 투자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IT 업계 관계자는 WSJ에 이스라엘의 혼란상에 글로벌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사법정비에 대한 저항을 선두에서 이끄는 것은 IT 업계 종사자들로, 이들은 현지 주요 일간지 5곳 1면에 항의 광고를 싣기도 했다.

이들은 사법정비가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사법 체계의 신뢰를 잠먹어 결국 투자와 인재 유치를 막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사법 정비 법안이 가결된 24일(현지시간) 텔아비브에서 시민들이 고속도로를 점거하며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독회(讀會)를 열고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연합뉴스

중 '잠적' 친강 외교부장 면직 신임 부장에 다시 왕이 임명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7개월 만에 외교부장에 복귀하면서 당과 정부의 이원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중국 외교라인을 왕 위원이 총괄하게 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5일 한 달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친강 외교부장을 면직하고 왕 위원을 신임 외교부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명실상부 당정 외교를 아우르는 '원톱'이 된 것이다.

경험이 풍부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왕 위원이 외교를 총괄하고 실무를 지휘하는 자리를 맡게 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동안 소원했던 한·중 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왕 위원은 외교부장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한 데다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대체로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연합뉴스

“미국, 2030년까지 반도체 산업 인력 6만 7천명 부족”

“반도체 산업 부양 노력 위협”

미국 반도체업계는 2030년까지 급속한 확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 반도체 산업 부양 노력이 위협받게 될 것으로 경고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등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2030년까지 미국에 11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현재 학위 수여율을 감안하면 6만 7000개 정도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도체 업체들은 오랫동안 미국 내 자격을 갖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는 지난주, 숙련노동자 부족으로 애

리조나에 건설 중인 공장의 가동을 2024년 말에서 2025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TSMC와 함께 삼성전자, 인텔 등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반도체 법(CHIPS Act) 보조금 활용 방안으로 미국에 생산시설 건설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SIA는 이에 따라 업계 총매출이 2030년까지 1조 달러(약 1280조 원)로 증가해 2020년의 두배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컨설팅업체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조사 결과, 그 시점 반도체산업에 46만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추세로 볼 때 6만 7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과학과 공학, 수학, 기술 등을 공부

하는 미국인들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이런 기술을 보유한 타국민들은 미국을 떠나고 있다고 SIA는 지적했다.

미국 대학 공학 석사 졸업생의 50%, 박사 학위 소지자의 60%가 다른 국가 국민이며, 석사의 80%, 박사의 25%가 자의 또는 미국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이민정책으로 인해 미국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SIA 존 뉴퍼 회장은 "현재 5500억 달러의 산업 규모가 1조 달러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인제가 필요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세계 유수의 대학이 배출하는 인재 확보를 위해 이민 개혁이 필요하고 더 많은 학생이 이와 관련된 전공을 선택하도록 유인하고, 업계도 관련 기술을 가진 인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훈센 캄보디아 총리 사의 “장남에 권력 넘기겠다”

올해로 38년째 장기 집권 중인 훈센(70) 캄보디아 총리가 장남인 훈 마넛에게 권력을 넘기겠다고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26일 현지 일간 크메르타임지와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훈센은 이날 국영TV의 특별 방송에서 나와 "총리직에서 물러날 방침이며 이를 국민들이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장남 훈 마넛이 새 정부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훈센은 1985년 총리에 취임한 뒤 38년간 캄보디아를 이끌어왔다.

그는 "훈 마넛은 다음 달 7일 국왕에 의해 총리에 지명된 뒤 22일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새로운 총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훈센은 부자간 권력 세습을 겨냥한 비판에 대해서는 "훈 마넛은 이번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집권당 대표·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퇴임 후 국왕 최고 자문위원장을 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남이 총리가 되더라도 막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섭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훈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은 지난 23일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해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CPP는 전체 의석 125개 중 120개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5석은 친정부 성향의 정당인 푼신펙(FUNCINPEC)이 가져갔다. /연합뉴스

미얀마 군부 교도소 석방 아웅산 수치 가택연금설

미얀마 군사정권에 의해 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던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풀려나 가택연금 상태가 됐다는 설이 제기됐다.

BBC 방송은 이미 수치 고문이 교도소에서 나와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고 보도했으며, AP통신은 다음 주 가택연금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BBC는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교도소에 수감됐던 수치 고문이 차관급 관료에게 배정된 주택으로 이송됐다고 교도소 소식통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다만 미얀마 군사정권과 수치 고문 변호인 측은 이송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BBC는 전했다.

교도통신도 26일 BBC를 인용해 수치 고문이 가택연금 상태로 전환됐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얀마 군정이 다음 주 발표할 사면 조치의 일부로 수치 고문을 가택연금할 계획이라고 26일 보도했다.

AP통신 역시 수치 고문의 가택연금 전환에 대한 당국의 공식적인 확인은 없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수치 고문의 가택연금 전환이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네피도의 대형 불상 봉헌식에 맞춰 발표될 것이라고 AP에 말했다.

그는 BBC 보도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